

저금리시대 금리 매력 만점

은행 신종자본증권, 자금 블랙홀

원금손실·배당중지 위험 있지만 리스크 실현 가능성 적어 매력적

최근 발행이 이어지고 있는 은행·금융 지주의 신종자본증권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신종자본증권이 일반 채권과 달리 원금손실과 배당중지 위험이 있지만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을 감안하면 저금리 시대에 투자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하나금융지주가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키로 한 데 이어 IBK기업은행 역시 3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바젤III 자본규제 강화에 따라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해 왔다. 특히 기본자본인 신종자본증권은 지난해 발행규모가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급증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졌다. 채권과 같이 일정한 이자가 지급되고, 특정 시점에 콜옵션 행사를 통해 원금이 상환될 수도 있다.

(2018년말 주요 은행지주회사 자본비율 현황(잠정치)) (단위: %)

Table with 8 columns: 구분, KB, 신한, 하나, DGB, BNK, JB, 평균. Rows include BIS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CET1자본비율.

/자료=각 사, DB금융투자

반면 기업의 재무상황이 극단적 상황에 몰리게 되면 상환순위가 뒤로 밀리게 된다. 은행의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BIS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상각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은 금리면에서 매력도가 높다. 신용등급이 낮고, 만기가 길다보니 금리가 높다.

DB금융투자 이병건 연구원은 "원금손실 조항이 있어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선순위채보다 각각 2등급, 3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받게 된다"며 "여기에 콜옵션 행사기간인 5년, 혹은 10년으로 만기가 길어진 것을 고려하면 수익률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룹에도 투자자들의 자금이 신종자본증권에 몰리는 것은 국내 은행들의 건전성을 감안하면 리스크 요인들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2018년 말 기준 자본비율 현황은 모두 9%를 웃돈다. 대형 은행지주들은 12%를 상회한다.

이 연구원은 "국내 은행들의 높은 자본수준과 자본적정성의 개선, 잘 분산된 대출포트폴리오를 고려하면 신종자본증권에 내재된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신종자본증권에 내재한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인지와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매력적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추나요법에도 진보료... 車보험 진료비 급증할 듯

내달부터 근골격계질환자 한정 혜택 진료수가 기준 적용... 악용 가능성도

오는 4월부터 한방 추나요법(推拿療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의료계 반발이 심한 가운데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진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8일부터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 지급 대상으로 포함돼 근골격계질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17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그동안 추나요법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액을 국가에 청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4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한방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

(한방 추나요법 수가) (단위: 원)

Table with 5 columns: 구분, 건강보험 변경안 (한방병원, 한의원), 2017년 추나요법 시범사업 (한방병원, 한의원). Rows include 단순추나, 복잡추나(전문추나), 특수추나.

주: 1) 건강보험 변경안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11.29)에 기초함. 2) 보건복지부는 2017년 65개 시범기관(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을 지정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함. 3) 보건복지부는 2017년 시범사업 당시 사용한 '전문추나'라는 표현 대신 '복잡추나'라는 표현을 사용함. /자료=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2.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11.29)

(탈구)추나 기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복잡·특수추나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환자 1명당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설정했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1인은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방병원 기준 단순추나 2만2332원, 복잡추나 3만7716원, 특수추나 5만7804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문제는 추나요법이 요양급여로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 자동차보험에서 진료비 급증이 예상된다. 실제로 추나요법은 지난

해 기준 742억원, 437만 회 시행으로 주요 한방 비급여항목 중 2017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급여화가 될 경우 증가 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는 복잡추나는 실질적으로 급여라고 보기 어렵지만 수가는 높아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본인부담률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용증에 큰 차이가 없어 수가가 약 1.7배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할 인정기준(심사 기준)이 필요하다"며 "자동차보험은 온냉 경락요법과 유사한 형식의 세부인정기준이 자보수가 기준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NH농협금융, 올해부터 디지털 역량 검증

NH농협금융지주는 올해 신규직원 공채시부터 디지털 마인드와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선별할 수 있도록 신규직원 채용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채용전형 단계별로 지

원자의 디지털 역량과 경험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에 디지털 역량과 경험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능력검사에서 디지털 분야의 지식 등을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면접시에는 심도 있는 역량평가를 위해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면



접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광수 회장(사진)은 "디지털 경쟁력 확보는 조직의 생사가 걸러있는 중요한 애젠다"라며 "직원 모두가 디지털금융에 대한 기본 마인드와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직원 채용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전세 세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

금감원 Q&A

주택담보대출

Q.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주민등록상에서 주소를 잠시 빼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며칠만 지나고 다시 전입신고하면 된다는데 붙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앞두고 있는데 미리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A. 지금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계획이 있을 경우 급하게 주소지를 옮기지 않길 권합니다.

은행은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전세자금대출)의 합계금액을 정해 관리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담대를 추가로 받는다면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때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주담대를 받기 위해 전출 요청을 했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예정된 주담대 금액을 문의하고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은 한달 정도 넉넉히 시간을 갖고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신



청하면 그때부터 은행이 '심사'에 들어가는데 고객의 신용 상태 확인부터 집주인의 동의 절차,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 등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최악의 경우 심사 중 만기가 다가오면 '연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심사 기간에 집주인 확인을 거치지 집주인에게도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면 절차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의 상대방이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라면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둬야 합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심사 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증명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보고 있으니 대리관계 증명 서류를 준비하세요. /김희주 기자

핀테크기업 금융테스트에 40억 지원

금융위

금융법상 인허가·영업행위 규제 면제 적정성 여부 심사 후 선별 지원 계획

정부가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40억원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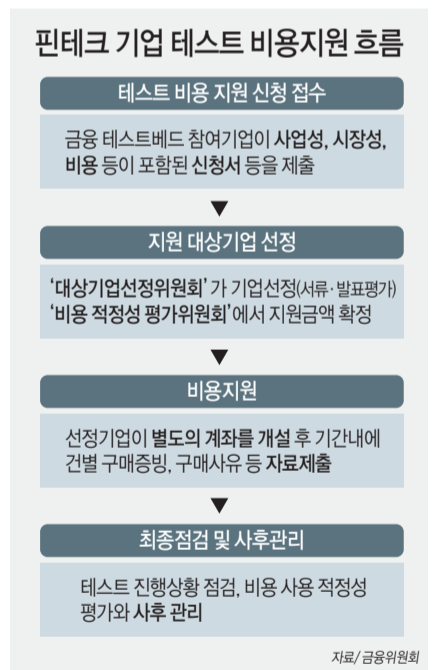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40억원 규모의 테스트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다수 핀테크 기업은 규모가 영세해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테스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근거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으면 금융법상 인허가나 영업행위 규제를 면제 받는 제도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대출 심사나 예금수입 등 금융사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고, 위탁테스트는 당국의 승인 없이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에 위탁해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금융위는 참여하는 모든 핀테크기업에 테스트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동일 회계연도 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테스트베드 선정 기업에 대해서 혁신금융서비스에 20억원,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에 각각 10억 원 등 총 40억 원이 지원된다. 개별기업은 테스트비용의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예상 지원기업은 최대 100개 기업으로, 이번 1차 지원에는 테스트베드별 참여, 핀테크 기업수, 시범 영업 수준 난이도 등을 고려해 최대 20개 기업 총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며,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인력에 한정된다. 지원대상 기업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한 뒤, 비용적정성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용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간 점검, 최종평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테스트 종료 후 테스트 성공여부(정량·정성), 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